

# 말 뿐인 구조조정... 좀비기업 46% 늘었다

### 정부 부실기업 111곳 정리한다 해놓고 퇴출 2곳 뿐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 6년간 130곳 증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못 갚는 기업 이른바 '좀비기업'이 6년 새 46% 늘어나는 등 정부가 추진하는 구조조정의 성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12일 기업정보 제공업체인 NICE평가정보가 영업이익과 금융비용을 공개한 1352개 기업의 상반기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영업이익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인 기업, 이른바 좀비기업이 31%(413개)에 달했다. 영업으로 번 돈으로 이자조차 못 갚는 기업이 10곳 중 3곳이란 의미다. 특히 이 숫자는 2010년 283개에서 6년 사이에 46%(130개)나 늘었다.

특히 좀비기업은 구조조정 필요성이 오랫동안 제기돼 온 철강·해운·건설 업종에 집중됐다. 해운사 중에는 한진해운(이자보상배율 -3.2)과 현대상선(-3.01), 흥아

해운(0.2) 등의 주요 국적선사들이 모두 좀비 기업이었다.

또 철강업계에서는 동부제철 외에 동양철관(-4.39)과 휴스틸(-3.89) 등 상당수 중소기업들이 좀비기업이었다. 특히 이들은 올 상반기 재무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다. 두산건설과 남광토건 등 건설사들은 3년 연속 좀비기업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그 밖에 수도주력산업의 상당수 기업이 고전하고 있어 좀비기업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조철 산업연구원 주력산업연구실장은 "우리나라 주력 업종의 상당수 기업이 중국 위협 등으로 인해 좀비기업 대열에 속속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세가 정부가 추진하는 산업 구조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Q** 이자보상배율  
기업이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은행 이자 등)을 감당할 수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누어 구한다. 통상 이자보상배율이 1이 못 될 경우는 좀비기업으로 분류한다.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자생력이 떨어진 기업을 퇴출시킨다고 말로만 입포를 뱉을 뿐 이런저런 눈치를 보며 연명시킨 것이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09년부터 건설·조선·해운 등의 구조조정에 착수한 정부가 111개 부실기업을 과감하게 정리하겠다고 나섰지만 실제 퇴출된 곳은 겨우 2개에 불과했다. 그해 5월에도 9개 대기업을 대상으로 재무구조 개선 약정까지 체결하며 구조조정을 독려했으나,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

우건설을 매각한 것 외에는 눈에 띄는 성과는 없었다. 한진해운과 현대상선은 2011년 이후 이자보상배율이 5년 연속 '1 이하'였으나, 정부의 선제적 구조조정은 없었다.

정부는 지난 연말에도 해운·조선·석유화학·철강·건설을 5개 취약업종으로 선정하면서 구조조정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부총리와 관계장관들이 "구조조정은 민간자율에 맡긴다"는 원칙을 천명하자, 시장에서는 "정부가 의지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 외국계 컨설팅사에 의뢰해 6개월 이상 검토해 최근 내놓은 해운과 철강의 구조조정 청사진에는 알맹이가 모두 빠져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장배 한국경제연구원 박사는 "과감히 살을 도려내는 구조조정이 지연되면 좀비기업의 위기가 향후 금융권으로 전이되면서 경제 전반을 뒤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2033.73 (+1.80)
- ↓ 금리 (국고채 3년) 1.35% (-0.02)
- ↓ 코스닥 669.95 (-0.69)
- ↑ 환율 (USD) 1123.60원 (+3.20)

## 10월 가계대출 감소세 전환

### 정부 규제 효과...6대은행 전년비 42% 줄어

정부가 가계대출에 대해 규제에 나선 가운데 이달 들어 일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적으로 10월은 이자철로, 가계대출 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나지만 은행들이 대출관리에 나서 전체 은행 대출도 증가 폭이 작던 동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12일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 등 6대 은행의 10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5영업일 동안 7420억원에 달한다. 이는 작년 동기(1조7788억원)에 견줘 절반 이하(약 42%)로 줄어든 것이다.

일부 은행들이 이처럼 가계예신을 줄인 건 정부가 최근 가계대출에 대해 '관리모드'에 들어간 것에 영향을 받아서다. 6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작년 말 485조 6000억원에서 올해 9월 말 521조 6000억원으로 36조원 넘게 늘었다. 이미 올해 제1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목표치인 37조원에 근접한 것이다.

특히 여름 비수기에 가계대출이 급증세를 보이자 정부는 8.25 가계대출 대책

을 발표했다. 이후 금융위와 금감원은 주 1회 이상 가계대출 특별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가동하며 8·25가계대출 대책의 후속 조치를 점검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여신 증가세가 둔화하고 있지만, 아직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거나 건전성 악화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일부 은행은 여신을 늘렸다.

KEB하나은행은 10월 들어 5영업일 동안 4000억원, 농협은행은 3000억원 정도 늘었다. 8~9월 두 달간 주택담보대출만 1조원을 줄인 우리은행도 이달 5영업일 동안에는 약 1000억원 늘었다.

그러나 이들 은행도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의 가산금리를 높이는 등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분위기에 동조하고 있다. KB국민·KEB하나·신한·우리·농협·씨티·SC 등 7개 시중은행의 8월 주택담보대출(만기 10년 이상 분할상환식) 평균금리는 연 2.59~2.85% 수준이다. 농협을 제외한 6개 은행의 평균금리가 전월에 견줘 모두 올랐다. /연합뉴스

## 한국산업 고객만족도

### 금호고속 11년 연속 1위

금호고속(대표이사 이덕연)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서 주관하는 '2016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KCSI)' 고속버스 부문에서 11년 연속 1위로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금호고속은 소비재 및 내구재, 서비스업 등 총 110개 산업군 중 고속버스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1위를 차지했다.

금호고속은 '고객행복경영'을 근간으로 해 다른 운송업체와 차별화된 서비스 전략을 구축하고 있다.

대표적인 실천 사례가 '고객님 기억하기'이다.

전 임직원이 현장 활동을 통해 고객에게 관심을 갖고 친절하게 응대하고 기억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어 금호고속을 다시 찾게 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다.

전 차량에 차선이탈 및 차간거리 경보장치를 설치, 운행 중 사고를 막고 승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품 개발에도 앞장서고 있다.

사고, 고장, 고객불만이 없는 회사를 만들자는 '3-Zero'운동을 통해 새로운 고속버스 시대를 열었다는 점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덕연 대표이사는 "안전하고 더욱 편안한 서비스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 11년 연속 수상 결과를 가져온 것 같다"며 "전 임직원이 솔선수범해 앞으로도 고객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회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몸에 좋은 우리 돼지 드세요" 12일 '한돈데이(10월1일)'를 맞아 장흥군 보건소에서 열린 한돈 나눔행사에서 문흥기 장흥축협조합장 등 관계자들이 지역 어르신들에게 한돈으로 요리한 삼겹살 수육 등으로 제공했다. 이날 행사는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남경)가 우리돼지 한돈 소비 확대를 위해 하여 한돈 나눔행사를 가졌다.마련됐 (농협전남지역본부 제공)

## 노트7 3조원 손실...삼성전자 3분기 영업이익 2조6천억 증발

### 5조2천억원으로 하향 수정

삼성전자가 12일 갤럭시노트7 단종에 따른 손실을 전부 반영해 올해 3분기 영업이익(잠정실적)을 7조8000억원에서 5조 2000억원으로 수정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연결기준으로 매출 47조원, 영업이익 5조2000억원으로 2016년 3분기 잠정 실적을 정정 발표했다. 삼성전

자는 앞서 지난 7월 매출 49조원, 영업이익 7조8000억원으로 3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한 바 있다.

이날 정정된 실적을 보면 매출은 4%(2조원), 영업이익은 33%(2조6000억원) 감소했다.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해 매출은 9.06%, 영업이익은 29.63% 감소한 것이다. 전 분기와 비교해서는 매출은 7.73%, 영업이익은 36.12% 줄었다.

삼성전자가 이날 정정실적 공시를 통해 갤럭시노트7 단종 비용을 전부 반영한 것은 이번 사태에 따른 손실을 3분기에 적용함으로써 4분기부터는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업계에서는 이미 판매된 갤럭시노트7 전량 리콜 비용과 미판매 제품 폐기 등 이번 사태로 인한 삼성전자의 손실이 최대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연합뉴스

## 9월 고용률 광주 하락·전남 상승

### 실업률은 동반 상승

9월 광주·전남 지역 실업자가 큰폭으로 증가한 가운데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광주는 하락한 반면, 전남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호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9월 광주 지역 실업자는 2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9000명(46.3%) 늘었다. 실업률은 3.6%로 전년 동월대비 1.2%포인트 올랐다.

고용률은 57.9%로 전년 동월대비 1.4%포인트 떨어졌으며 취업자는 73만

6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만8000명 감소(-2.4%)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경제활동인구는 50만8000명으로 작년 동월과 비교해 1만명 늘었다.

전남 지역 실업자는 2만7000명으로 역시 전년 동월대비 2000명(8.0%) 늘었다. 실업률은 2.7%로 전년 동월대비 0.1%포인트 상승했다.

고용률은 63.4%로 전년 동월대비 1.0%포인트 올랐으며 취업자는 95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대비 1만9000명 증가(2.0%)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대성기자bigkim@kwangju.co.kr

## 국토정보 웹툰·일러스트 공모전...내달 9일까지

LX한국국토정보공사(옛, 대한지적공사) 시장 김영표는 비전과 사업을 국민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국토정보 웹툰·일러스트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토정보로 만드는 행복한 미래'라는 주제로 웹툰 및 일러스트 분야로 나누어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응모가 가능하며 개인 및 2인 이하 팀으로 응모할 수 있다. 공모전은 다음달 9일까지 접수가능하며 11월 말 수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공모전 접수 및 자세한 사항은 공모전 사무국(02-334-7705) 및 홈페이지(www.landycontest.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대성기자bigkim@

DAEMYUNG RESORT

**GRAND OPENING 2016. 6. 22**

**대명리조트 신규분양 회원모집**

**13번째 리조트! 쏘비치 호텔&리조트 삼척**

---

산토리니움의 하얀 쏘비치 호텔&리조트 삼척과 파란 동해바다-황금빛 동화같은 전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산척해수욕장에서 바라본 쏘비치 호텔&리조트 삼척(709실).

\* 기종 신규회원 특별혜택 기간: 2년 / 분양금 일시불 납부 시 약 6% 할인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원하는 고객에게는 이번 신규회원 모집에 대한 분양 책자를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EQUESTRIAN	YACHT	GOLF	SKI	OCEAN WORLD	RESORT
소노펠리체 승아클럽	거제 마리나 베이	비발디파크 대중골프장(오아 리프트 및 4가지 유희시설)	오션월드 및 아우아일랜드	기종 신규회원 특별혜택	대명리조트 삼척
주말 20%, 주중 40%	주말 회원대우, 주중 50%	주말 50%, 주중 무료	무료	주말, 성수기 주중 50% 비수기 주중 무료	객실 회원 요금의 50%

전국 13개 지역 리조트 - 비발디파크(스키/캠핑/산악/안트러프/골프) - 소노펠리체 - 엘피노 - 골프 앤 리조트 쏘비치 호텔&리조트 양양 - 쏘비치 호텔&리조트 삼척 - 대명리조트 부산 - 대명리조트 경주 - 대명리조트 단양 - 대명리조트 양평 - 대명리조트 제주 - 대명리조트 거제 마리나 - 명품호텔 여수 - 영일호텔 고령

! 패밀리/스위트 납입계좌 | 예금주 (주)대명리조트 | 지정 계좌로 일괄금 납입금만 유효합니다. 우리은행 1005-900-99780 국민은행 614701-04-002581 신한은행 295-05-061967

**분양문의(24시간 상담 가능)**  
**062)714-2000**

빛가람로 전면부에 위치

**비전타워 7~8층**

**파격 분양 및 임대**

- 나주 혁신도시를 관통하는 메인도로변이라 광고효과 최고!
- 지상 11층, 지하 3층까지의 넉넉한 주차공간, 각종 병·의원 및 업무시설 입점
- 입점 내과 성업중이며, 피부과 치과등 11월 오픈확정!
- 병원을 침상이 이동 가능한 엘리베이터 완비
- 주변 배후세대 5000여가구 밀집

• 7층 전용면적 453평 / 8층 전용면적 453평 (전체 면적도 가능 / 1칸씩 분양및 임대도 가능)

**권장업종**

- 넓은 객실을 요하는 한방병원
- 아동 전문병원
- 업무용 사무실

분양가격및 계약기간, 임차가격은 협의가능하며 매수인과 임차인 의견 적극수렴 합니다.

**비전타워 분양 대행사 비전공인중개사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685, 비전타워106호)**  
**대표 박주연 010-4141-5300 / 061)335-0002**